

2021-06

경제 브리프

2021. 06. 10.

-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수출·설비투자 주도의 경기회복이 올해 2분기 들어 민간소비·고용으로 확산되는 모습
- 글로벌 capex cycle, 국내 추경·백신 접종 가속화 등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모멘텀이 하반기에 더욱 강화되어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(4.3%)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
 - 향후 글로벌 기업투자(capex)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자본재 수출·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가 크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
 - 민간소비는 백신 보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심리·고용시장 회복으로 개선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
 -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규제의 영향으로 당분간 감소세가 이어지겠으나, 선행지표의 회복세를 고려할 때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이 현실화되는 하반기에는 반등할 전망
- 경기회복 모멘텀이 민간소비와 고용으로 확산되면서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(1.9%)과 취업자수(24.7만 명 증가) 전망치도 상향 조정될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
 -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원자재가격 오름세가 글로벌 경기회복과 공급제약으로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, 기상여건 악화 등 농축산물 가격의 불안 요인도 상존
 - 백신 접종 가속화로 숙박·음식 등 대면서비스 부문의 취업자가 다시 늘어나고, 수출·설비투자 급증에 힘입어 제조업 고용부진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

작성자: 경제·글로벌연구실 허문종 팀장(02-2173-0568)
이다은 선임연구원(02-2173-0578)
박수빈 조사원(02-2173-0556)
책임자: 경제·글로벌연구실 권영선 실장(02-2173-0569)



목 차



I.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	1
[붙임 1] 주요 부문별 2021년 경제 전망	5
[붙임 2] 생산활동·설비투자 동향	9
[붙임 3] 대외거래 동향	11
[붙임 4] 소비·고용·물가 동향	13
[붙임 5] 건설·부동산시장 동향	15

I.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

-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수출·설비투자 주도의 경기회복이 올해 2분기 들어 민간소비·고용으로 확산되는 모습
- 글로벌 capex cycle, 국내 추경·백신 접종 가속화 등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모멘텀이 하반기에 더욱 강화되어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(4.3%)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

① 향후 글로벌 기업투자(capex)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자본재 수출·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가 크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

* 6.4일자 Economist紙는 2022년말 전세계 기업투자 규모가 2019년말 대비 121% 수준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.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업투자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2년이 소요된 반면, 금번 코로나 위기는 1년도 안되어 회복(자세한 내용은 Box ‘코로나 이후 글로벌 기업투자 전망’ 참조)

- 실제 국내 수출과 설비투자는 글로벌 capex를 주도하는 반도체·디스플레이 등 IT(비대면 수요 확대), 자동차(친환경·미래형 모빌리티), 석유화학·철강(인프라 수요 증가)을 중심으로 개선폭이 확대

* 통관수출(전년동월대비, %): 2월 9.3 → 3월 16.4 → 4월 41.2 → 5월 45.6

* 설비투자(전년동월대비, %): 1월 19.4 → 2월 7.1 → 3월 9.5 → 4월 16.8

글로벌 기업투자 전망



자료: The Economist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국내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율



자료: 관세청,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(2021.5월말 IB 전망치 평균)

	단위	2020				2021				2019	2020	2021F
		Q1	Q2	Q3	Q4	Q1	Q2F	Q3F	Q4F			
글로벌	전년대비, %	-	-	-	-	-	-	-	-	3.1	-3.3	6.2
미국	전기대비 연율, %	-5.0	-31.4	33.4	4.3	6.4	9.5	6.9	5.4	2.3	-3.5	6.7
유로존	전기대비 연율, %	-14.5	-38.6	60.6	-2.4	-1.3	6.0	10.7	5.1	1.2	-6.8	4.4
일본	전기대비 연율, %	-2.0	-28.6	22.9	11.7	-3.9	1.5	6.2	6.1	0.7	-4.8	2.7
중국	전년동기대비, %	-6.8	3.2	4.9	6.5	18.3	8.1	6.3	5.2	6.1	2.3	8.9
한국	전기대비, %	-1.3	-3.2	2.2	1.1	1.7	0.8	1.1	1.3	2.0	-0.9	4.3

주: 1) 음영부분은 전망치

2) 글로벌·미국·유로존·일본·중국은 IB 전망치 평균, 한국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망치

자료: 국제금융센터,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※ 참고: 코로나 이후 글로벌 기업투자 전망

* 6.4일 The Economist, "The coming capex carnival" 요약

■ 글로벌 기업투자가 코로나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, 2022년 말 투자 규모는 2019년말 대비 121%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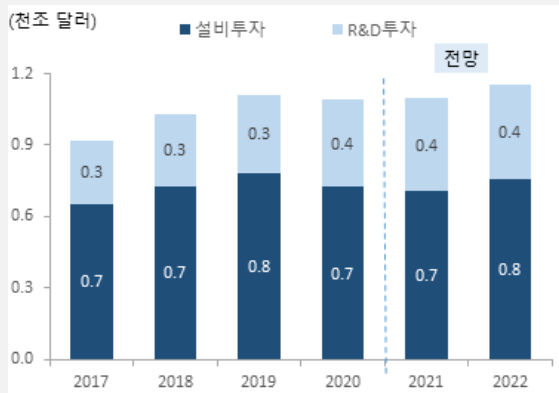
-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업투자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2년이 소요된 반면, 금번 코로나 위기는 1년도 안되어 회복
 - * 올해 미국 기업투자와 글로벌 총고정투자는 각각 15%, 6%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2008년 위기 이후 신용경색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되었으나,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는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투자활성화에 기여
 - * 미국 1인당 실질 가처분소득은 재정부양책 효과 등으로 2020.2월 대비 27% 증가
 - * S&P500 지수 내 비금융 기업들의 유보현금 규모는 2019년 0.9조 달러에서 2021년 1.4조 달러로 급증

■ 산업별로는 코로나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(예: 디지털 전환 가속화, 비대면 수요 확대)를 반영하여 반도체·ICT, 소매·운송업의 투자가 확대되는 반면, 석유·가스, 항공·호텔 부문은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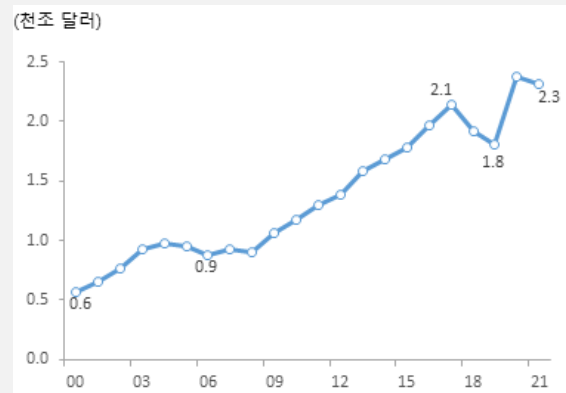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 관련 수요급증(예: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)으로 올해 기술부문(tech sector) 기업투자는 2019년말대비 42% 증가 예상
 - * 애플, TSMC는 향후 3~5년간 각각 4,300억 달러, 1,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

- * 2020년 S&P500 기업 R&D 투자지출에서 빅테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3%
- 온라인 소비 확대,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매·운송업도 기업투자를 늘리는 추세
 - 오프라인 소매업체는 온라인 유통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, 음식점도 배달서비스를 확대
- * 2021.1분기 S&P500 소매업종의 기업투자 규모는 36% 증가하였으며, 1~4월 세계 선박 발주량도 전년동기대비 172% 급증
- 다만, 석유·가스업은 저탄소·친환경 트렌드 확산으로, 항공·호텔업은 코로나 영향으로 M&A가 가속화되면서 기업투자가 축소

S&P500 기업투자 규모



S&P500 기업 유보현금 규모


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- ② 민간소비는 백신 보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심리·고용 회복에 힘입어 개선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
 - 최근 백신 접종 확대(6.7일 기준 1차 접종률 16.4%),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(20~30조원 관측) 추진이 소비심리 개선에 기여
 - * 소비자심리지수(기준선 = 100): 2월 97.4 → 3월 100.5 → 4월 102.2 → 5월 105.2
 - * 소매판매(전월대비, %): 2월 -0.9 → 3월 2.3 → 4월 2.3
 - * 서비스생산(전월대비, %): 2월 1.1 → 3월 1.3 → 4월 0.4
- ③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규제의 영향으로 당분간 감소세가 이어지겠으나, 선행

지표의 회복세를 고려할 때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이 현실화되는 하반기에는 반등할 전망

* 건설기성(전년동월대비, %): 1월 -8.0 → 2월 -8.3 → 3월 -5.7 → 4월 -1.8

* 건설수주(전년동월대비, %): 1월 27.2 → 2월 17.4 → 3월 35.8 → 4월 84.2

■ 경기회복 모멘텀이 민간소비와 고용으로 확산되면서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(1.9%)과 취업자수(24.7만 명 증가) 전망치도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

-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원자재가격 오름세가 글로벌 경기회복과 공급제약으로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큼
 - 기상여건 악화 등 농축산물 가격의 불안 요인도 상존
 - * CPI 상승률(전년동월대비, %): 2월 1.1 → 3월 1.5 → 4월 2.3 → 5월 2.6
 - * WTI선물가격(달러/배럴): 2018.10.18일 69.8 → 2020.4.20일 -37.6(최저) → 2021.6.9일 69.6(2년8개월만에 최고치, 전년동일대비 +86.1%)
- 백신 접종 가속화로 숙박·음식 등 대면서비스 부문의 취업자가 다시 늘어나고, 수출·설비투자 급증에 힘입어 제조업 고용부진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
 - * 취업자 증감(전년동월대비, 만명): 2월 -47.3 → 3월 31.4 → 4월 65.2 → 5월 61.9

국내 주요 거시지표 추이

(전년동기대비, %, 만명)

	실질GDP	수출(통관)	전산업	광공업	서비스업	소매판매	설비투자	건설기성	CPI	취업자
2020.1분기	1.5	-1.9	1.4	4.6	-1.0	-2.9	8.1	-0.8	1.2	28.8
2분기	-2.6	-20.3	-3.7	-5.9	-3.4	2.0	5.8	-5.5	-0.1	-40.7
3분기	-1.0	-3.4	-0.9	0.2	-1.7	1.6	7.7	-4.2	0.6	-31.4
4분기	-1.1	4.2	-1.5	0.0	-2.0	-1.2	2.8	-5.3	0.4	-44.1
2021.1분기	1.9	12.5	2.7	4.4	2.2	6.3	11.9	-7.2	1.1	-38.0
2021.1월	-	11.4	1.5	7.8	-1.8	0.0	19.4	-8.0	0.6	-98.2
2월	-	9.3	0.4	0.8	0.8	8.2	7.1	-8.3	1.1	-47.3
3월	-	16.4	5.7	4.4	7.8	10.9	9.5	-5.7	1.5	31.4
4월	-	41.2	8.8	12.4	8.4	8.6	16.8	-1.8	2.3	65.2
5월	-	45.6	-	-	-	-	-	-	2.6	61.9

자료: 한국은행, 관세청,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붙임1 | 주요 부문별 2021년 경제 전망

1. 경제 성장

- 국내 경제는 글로벌 수요 개선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급증하고 민간소비도 대규모 초과저축(60조원 추정)을 기반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여 GDP 성장률이 2020년 -0.9%에서 2021년 4.3%로 크게 개선될 전망

① [민간소비] 대규모 초과저축(60조원 추정)에 기반한 이연수요(pent-up demand),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서비스 소비의 회복, 고용·복지 분야 재정 지원 강화가 긍정적으로 작용(2020년 -5.0% → 2021년 3.4%)

- *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는 통상의 경우에 비해 약 41조원(GDP 대비 2%)의 초과저축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, 올해 4차 재난지원금(14.9조원 추경 통과로 20.7조원 집행)이 추가 지급되어 초과저축규모가 60조원(GDP 대비 3%)에 육박한 것으로 보임
- *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석(9.21일)을 전후로 전국민 지급을 포함하는 5차 재난지원금 가능성이 대두(실행될 경우 7월 추경 편성, 8~9월 지급이 유력)
- * 물량 확보로 백신 접종 속도가 가속화(1회 백신 접종률 5.26일 7.8% → 6.5일 14.7%)됨에 따라 정부는 11월 집단면역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

② [수출(재화·서비스)] 미국 등 주요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,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활동 정상화, 반도체·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업황 호조에 힘입어 상품 수출을 중심으로 반등(2020년 -1.8% → 2021년 11.1%)

- * 통관수출(전년동기대비) 전망: 2020년 -5.5% → 2021년F 26.3%
- * 5월 국내 통관수출(전년동월대비 +45.6%)은 지역별·품목별(9대 주요지역 전체, 15대 품목 중 선박 제외한 14개)로 고르게 증가하여 글로벌 교역이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며, 반도체·디스플레이 등 IT품목 외에 석유화학·석유제품·기계·철강 등 중간재·경기민감품목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는 양상
- * 수출 물량(전년동월대비, %): 3월 -8.2 → 4월 0.5(7개월만에 증가) → 5월 15.6

③ [설비투자] IT(특히 반도체)·자동차 등 주력 수출업종의 수요 회복, 한국판 뉴딜사업(디지털·그린) 추진으로 기업투자가 확대(2020년 7.1% → 2021 9.6%)

- * 4월 광공업생산은 반도체·자동차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12.4% 늘었고,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IT부문을 중심으로 16.8% 증가
- * 기계수주(전년동월대비, %): 2월 29.3 → 3월 18.7 → 4월 16.4 → 5월 16.1

* 자본재 수입액(전년동월대비, %): 2월 36.2 → 3월 25.7 → 4월 33.8 → 5월 16.1(9개월 연속 증가)

④ [정부소비] 재난지원금 등 확장적 재정운용이 민간 수요를 뒷받침하겠으나 정부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둔화(2020년 5.0% → 2021 3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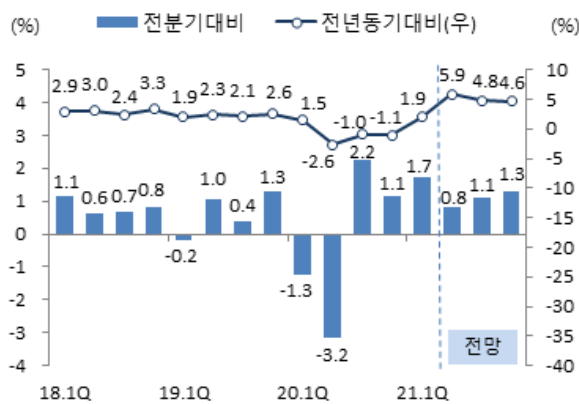
* 정부 총지출 증가율(추경 포함, %): 20년 16.7 → 21년 3.3(1차 추경 감안)

* 6.4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공식화(20~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7월 국회 통과, 추석 이전 지급 목표)한 가운데 지급방식(보편/선별)에 대해서는 논의중

⑤ [건설투자] 주택시장 규제, 건설자재 수급차질 영향으로 당분간 감소세가 이어지겠으나,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이 현실화되는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예측(2020년 -0.4% → 2021년 1.8%)

*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축원자재 수급불안으로 4월 건설공사비지수(잠정)가 전년말 대비 5.0% 상승했다고 발표

2021년 한국 분기별 GDP성장률 전망



자료: 한국은행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국내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율



자료: 관세청,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2. 소비자물가

■ 2021년 CPI 상승률은 1.9%로 2020년(0.5%)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

- 무상교육 등 복지정책에 따른 지표물가 하락요인에도 불구하고, 글로벌 경기 회복에 의한 석유·원자재가격 상승, 작황 부진에 기인한 농축수산물가격 오름폭 확대에 기인

* 2021.1학기부터 대구·경북·전북지역 고1 대상 무상교육 확대(2021년내 전면 실시), 서울 1학년, 대구·경북 2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실시 예정

* WTI선물가격(달러/배럴): 2018.10.18일 69.8 → 2020.4.20일 -37.6(최저) → 2021.6.9.일 69.6(2년8개월만에 최고치, 전년동일대비 +86.1%)

3. 고용

■ 취업자는 2020년 21.9만명 감소에서 2021년 24.7만명 증가로 개선될 전망

- 코로나 진정과 전년도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로 숙박·음식 등 대면 서비스업의 고용상황이 개선되고, 수출 회복과 가동률 상승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부진 완화, 공공일자리 확대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
 - * 6.9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작년 2월과 비교해 80% 이상 일자리가 회복되었다고 발언
 - * 5월 취업자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제조업(+2.0만명)이 2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, 코로나 영향이 집중되었던 숙박음식업의 회복세, 정부의 일자리사업(올해 104.2만개)에 의한 공공·행정, 보건·복지 일자리 확대로 전년동월대비 61.9만명 증가

4. 경상·재정수지

■ 2021년 경상수지 흑자는 867억달러(GDP 대비 4.7%)로 2020년(753억달러, 4.6%) 규모를 상회할 전망

- 경기 개선,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, 서비스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로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
 - * 4월 경상수지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19.1억 달러로 12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

■ 2021년 통합재정수지는 75.0조원(GDP 대비 3.7%) 적자로 2020년(71.2조원 적자, 3.7%)보다 적자폭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측

- 명목 경제성장률 회복 등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,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원(예: 재난지원금, 소상공인 지원)을 강화
 - * 2021.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적극적인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경기 개선에 의한 세수 증가로 적자폭이 전년대비 개선(2020.1분기 45.3조원 → 2021.1분기 30.1조원)

5. 부동산시장

■ 2021년 주택가격 상승률은 7.14%로 2020년(8.35%)보다 둔화될 전망

- 저금리, 풍부한 시중 유동성, 전세가 상승에 따른 수요 확대로 매매가격 오름

세가 이어지겠으나, 보유세·양도세 강화와 대출 규제, 다년간 급등에 따른 관망 수요, 공공 주도의 공급물량 확대 기대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제한

* 5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대비 1.18%로 7개월 연속 1%를 상회

국내 주요 거시지표 전망

항목	단위	2019	2020	2021F	2020				2021F			
				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
GDP(실질)	전기대비, %	2.2	-0.9	4.3	-1.3	-3.2	2.2	1.1	1.7	0.8	1.1	1.3
	전년동기대비, %				1.5	-2.6	-1.0	-1.1	1.9	5.9	4.8	4.6
민간소비	전기대비, %	2.1	-5.0	3.4	-6.6	1.2	0.2	-1.3	1.2	2.2	2.2	1.0
	전년동기대비, %				-4.8	-4.2	-4.5	-6.6	1.2	1.9	4.0	6.5
정부소비	전기대비, %	6.4	5.0	3.1	1.6	1.0	0.1	-0.4	1.6	1.4	0.8	-0.2
	전년동기대비, %				6.8	6.2	4.6	2.3	2.3	2.9	3.4	3.7
설비투자	전기대비, %	-6.6	7.1	9.6	0.1	0.7	5.8	-0.6	6.1	-0.8	2.4	0.5
	전년동기대비, %				7.4	4.5	10.7	6.1	12.4	11.6	5.8	8.7
건설투자	전기대비, %	-1.7	-0.4	1.8	0.1	-2.9	-3.9	3.5	1.3	0.5	0.4	1.2
	전년동기대비, %				4.4	-0.4	-1.5	-2.9	-1.8	-0.5	7.4	2.1
수출(재화, 서비스)	전기대비, %	0.2	-1.8	11.1	-0.8	-15.9	16.3	5.3	2.0	0.6	1.9	2.5
	전년동기대비, %				5.7	-13.0	-2.3	2.3	5.1	25.3	10.1	6.8
수입(재화, 서비스)	전기대비, %	-1.9	-3.3	9.3	-2.6	-5.8	5.9	1.5	2.9	3.5	1.0	3.1
	전년동기대비, %				0.4	-9.0	-3.5	-1.3	4.1	14.9	9.6	10.0
수출(통관)	전년동기대비, %	-10.4	-5.5	26.3	-1.9	-20.3	-3.5	4.1	12.5	34.0	30.6	28.9
수입(통관)	전년동기대비, %	-6.0	-7.1	24.7	-1.9	-15.8	-8.7	-1.7	12.0	30.9	29.2	27.6
재정수지 ¹⁾	조원	-12.0	-71.2	-75.0	-	-	-	-	-	-	-	-
	GDP대비, %	-0.6	-3.7	-3.7	-	-	-	-	-	-	-	-
경상수지	억달러	597	753	867	129	61	240	322	228	137	243	259
	GDP대비, %	3.6	4.6	4.7	-	-	-	-	-	-	-	-
소비자물가	전년동기대비, %	0.4	0.5	1.9	1.2	-0.1	0.6	0.4	1.1	2.2	2.1	2.1
실업률(SA)	%	3.8	4.0	4.1	3.7	4.1	3.8	4.3	4.4	4.1	3.8	4.3
취업자 증감	전년동기대비, 만명	30.1	-21.9	24.7	28.8	-40.7	-31.4	-44.1	-38.0	53.6	44.1	39.3
전국 주택매매가격	전기말대비, %	0.24	8.35	7.14	1.29	0.85	2.47	3.50	3.92	2.33	0.94	-0.19
기준금리	기말, %	1.25	0.50	0.50	0.50	0.50	0.50	0.50	0.50	0.50	0.50	0.50

주: 1) 통합재정수지 기준

자료: 한국은행, 관세청,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붙임2

생산활동·설비투자 동향

■ 4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, 고무·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.6% 감소

- 반도체(-10.9%)는 전월 반도체지수 신고점 경신에 따른 기저효과로 D램,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 생산량이 감소
- 고무·플라스틱(-4.0%)은 전기전자기기용 케이스 품목 등이 축소
- 제조업 재고/출하비율(102.4%)은 재고(-0.1%)에 비해 화학제품, 자동차 등 출하(-0.9%)가 더 크게 감소하여 0.8%p 상승

■ 서비스업 생산은 소비 활동이 늘며 전월대비 0.4% 증가(3개월 연속 개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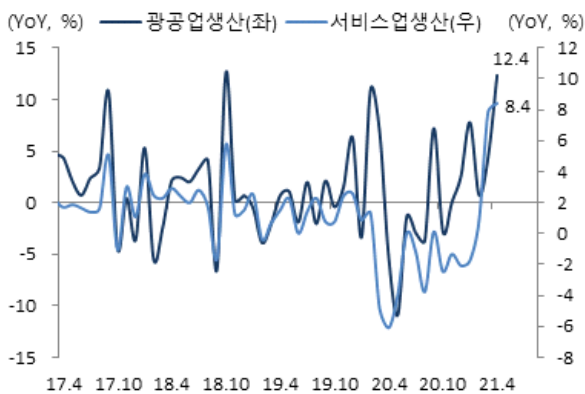
- 숙박·음식점(+3.1%)은 집합금지조치 완화로 개선되고, 도소매업(+0.8%)은 의복, 화장품 등의 수요가 늘어 소매업을 중심으로 증가

■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3.5% 확대

*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(일평균, 백만달러): 3월 99.2 → 4월 106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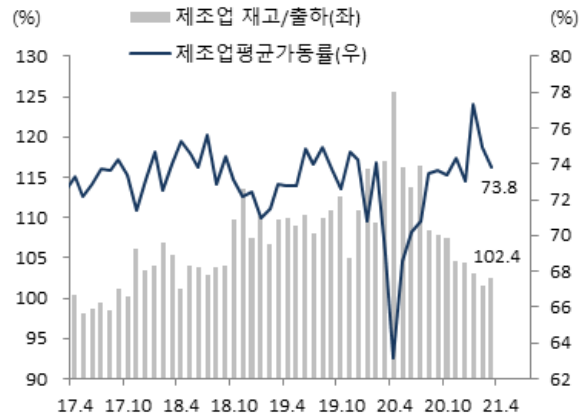
■ 경기 선행지수(순환변동치)가 11개월 연속 상승하고, 동행지수도 제조·서비스·건설·소비·고용 등 모든 항목이 개선되어 오름폭이 확대

광공업·서비스업 생산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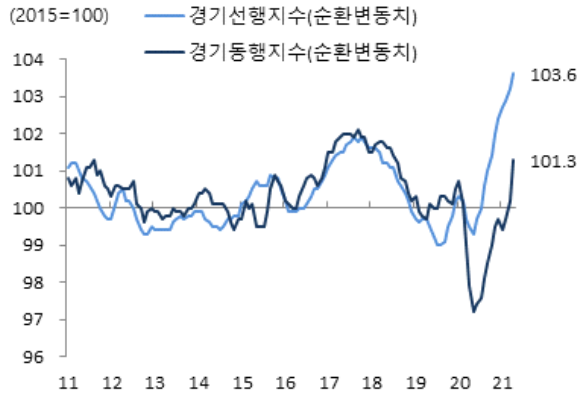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재고/출하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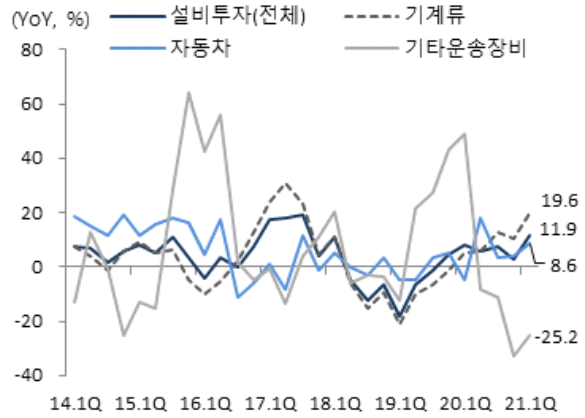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경기 동행·선행지수 순환변동치


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설비투자 증가율(분기)


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주요 생산활동·설비투자 지표

항목	단위	연간			분기				월간			
		2018	2019	2020	20.2/4	3/4	4/4	21.1/4	21.1월	2월	3월	4월
GDP 성장률	전기대비, %	-	-	-	-3.2	2.2	1.1	1.7	-	-	-	-
	전년동기대비, %	2.9	2.2	-0.9	-2.6	-1.0	-1.1	1.9	-	-	-	-
민간소비	전기대비, %	-	-	-	1.2	0.2	-1.3	1.2	-	-	-	-
	전년동기대비, %	3.2	2.1	-5.0	-4.2	-4.5	-6.6	1.2	-	-	-	-
정부소비	전기대비, %	-	-	-	1.0	0.1	-0.4	1.6	-	-	-	-
	전년동기대비, %	5.3	6.4	5.0	6.2	4.6	2.3	2.3	-	-	-	-
설비투자	전기대비, %	-	-	-	0.7	5.8	-0.6	6.1	-	-	-	-
	전년동기대비, %	-2.3	-6.6	7.1	4.5	10.7	6.1	12.4	-	-	-	-
건설투자	전기대비, %	-	-	-	-2.9	-3.9	3.5	1.3	-	-	-	-
	전년동기대비, %	-4.6	-1.7	-0.4	-0.4	-1.5	-2.9	-1.8	-	-	-	-
총수출	전기대비, %	-	-	-	-15.9	16.3	5.3	2.0	-	-	-	-
	전년동기대비, %	4.0	0.2	-1.8	-13.0	-2.3	2.3	5.1	-	-	-	-
총수입	전기대비, %	-	-	-	-5.8	5.9	1.5	2.9	-	-	-	-
	전년동기대비, %	1.7	-1.9	-3.3	-9.0	-3.5	-1.3	4.1	-	-	-	-
광공업 생산	전기대비, %	-	-	-	-6.5	6.0	2.9	3.3	-1.2	4.2	-0.9	-1.6
	전년동기대비, %	1.4	0.4	-0.4	-5.9	0.2	0.0	4.4	7.8	0.8	4.4	12.4
서비스업 생산	전기대비, %	-	-	-	-1.3	2.0	0.9	0.7	-0.1	1.1	1.3	0.4
	전년동기대비, %	2.3	1.4	-2.0	-3.4	-1.7	-2.0	2.2	-1.8	0.8	7.8	8.4
제조업 가동률	기간평균, %	73.8	73.2	71.3	66.9	71.5	73.8	75.1	73.0	77.3	74.9	73.8
재고/출하 비율	기간평균, %	105.7	109.5	113.2	120.4	113.2	106.9	103.2	104.9	103.1	101.6	102.4
설비투자	전기대비, %	-	-	-	2.7	2.2	0.8	6.9	6.3	-2.2	0.0	3.5
	전년동기대비, %	-3.6	-5.7	6.0	5.8	7.7	2.8	11.9	19.4	7.1	9.5	16.8

자료: 한국은행,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붙임3 | 대외거래 동향

■ 5월 통관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5.6% 급증(일평균 수출액은 52.3% 증가)

- 수출 단가가 25.8% 상승하고, 수출 물량이 15.6% 증가
-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품목중 선박을 제외한 14개 품목이 개선
 - * 선박(-14.9%)은 선가가 낮은 시기에 수주한 2~3년전 실적이 주로 반영된 영향
 - 반도체(+24.5%)는 스마트폰 5G 본격화, 데이터센터 투자에 따른 메모리 주문 확대 등으로 고정가격이 올라 11개월 연속 호조세
 - 석유제품(+164.1%)은 유가 회복에 의한 수출단가 상승, 백신 공급에 따른 항공유 수출 증가에 힘입어 확대
 - * 두바이유 가격(달러/배럴): 2020.1.6일 69.4 → 4.22일 14.9(최저) → 2021.5.31일 66.6
 - 철강(+62.9%)은 원자재 가격 강세, 전방산업(건설·자동차 등) 업황 회복으로 증가
- 국가별로는 미국, EU, 중국 등 9대 주요지역에 대한 수출이 모두 확대
 - 對미국 수출(+62.8%)은 자동차, 반도체,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늘어남
 - 對EU 수출(+62.8%)은 이동제한조치 완화가 본격화되면서 자동차가 늘고, 제조업 중심 경기회복과 SOC 관련 자본투자 확대로 일반기계가 증가
 - 對중국 수출(+22.7%)은 공장 가동 정상화, 수출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철강, 석유화학 등이 선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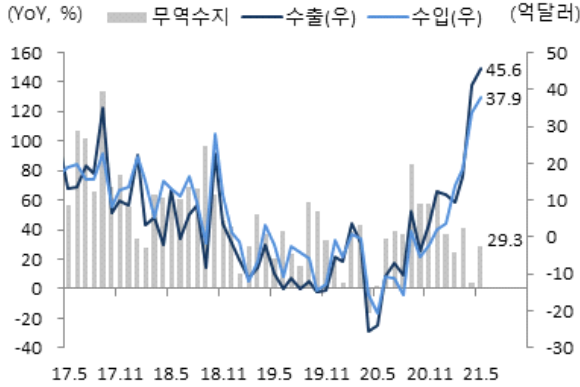
■ 5월 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차산품이 급등(+87.0%)한 가운데, 경기 개선으로 중간재·자본재·소비재가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37.9% 증가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항목	단위	연간			분기				월간			
		2018	2019	2020	20.2/4	3/4	4/4	21.1/4	2월	3월	4월	5월
GDP 수출 (재화·서비스)	전기대비, %	-	-	-	-15.9	16.3	5.3	2.0	-	-	-	-
	전년동기대비, %	4.0	0.2	-1.8	-13.0	-2.3	2.3	5.1	-	-	-	-
수출	전년동기대비, %	5.4	-10.4	-5.5	-20.3	-3.5	4.1	12.7	9.3	16.4	41.2	45.6
수입	전년동기대비, %	11.9	-6.0	-7.1	-15.8	-8.7	-1.7	12.0	14.1	18.7	33.9	37.9
무역수지	억달러	697	389	449	19	160	182	106	25	41	4	29
경상수지	억달러	775	597	753	61	240	322	228	79	78	19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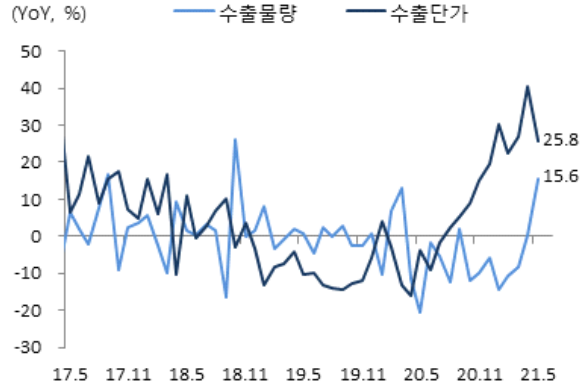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관세청, 한국은행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월간 수출입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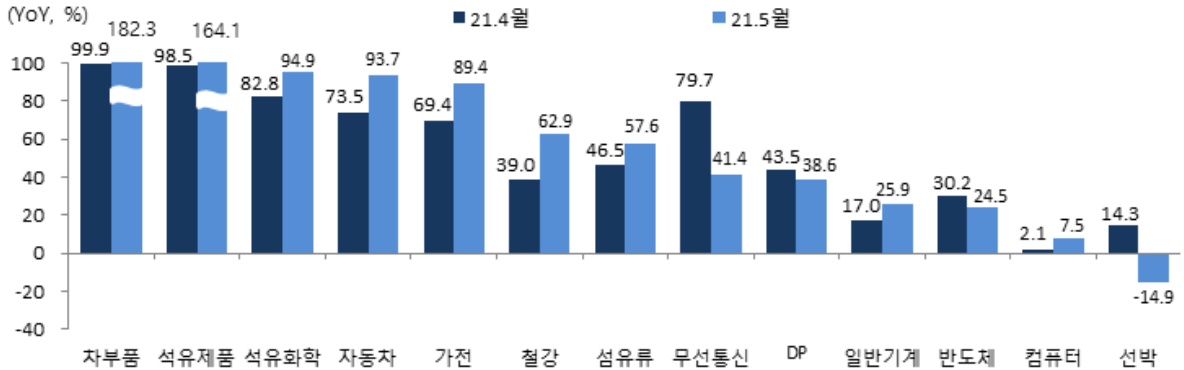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수출 물량과 단가



자료: 관세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품목별 수출 증가율

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관세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지역별 수출 증가율

(전년동월대비, %)

	수출 전체	중국	ASEAN	(베트남)	(베트남 제외)	미국	EU	일본	중남미	중동	인도	CIS
20-06	-10.9	9.8	-11.2	-2.4	-19.9	-8.2	-16.4	-18.0	-49.1	-21.7	-54.1	-2.9
20-07	-7.1	2.5	-14.7	-0.4	-29.7	7.9	-10.9	-21.5	-18.7	-24.8	-42.4	-20.5
20-08	-10.3	-3.1	-17.9	-8.4	-28.5	-0.7	-1.3	-21.5	-33.5	-20.5	-33.2	-25.8
20-09	7.1	7.2	3.9	13.4	-6.9	23.0	16.0	-6.7	-27.8	-9.8	28.0	-16.9
20-10	-3.9	-5.9	-6.5	7.1	-21.4	3.2	8.4	-18.9	-17.8	-19.0	-6.5	0.7
20-11	3.9	1.2	6.4	11.2	0.7	6.4	22.3	-11.9	4.8	-20.8	9.2	-34.1
20-12	12.4	3.4	19.3	35.1	3.1	11.5	28.6	1.6	19.7	-33.4	16.5	-5.6
21-01	11.4	22.2	-15.7	13.7	-38.1	46.5	23.9	-8.3	7.8	-13.0	3.5	-20.1
21-02	9.3	27.0	-6.7	-0.6	-13.1	7.8	44.5	-3.2	3.7	-23.8	-7.2	-16.9
21-03	16.4	26.0	10.6	5.2	16.6	9.3	36.4	-2.8	1.1	-17.6	8.9	0.3
21-04	41.2	31.9	45.6	59.7	32.3	43.1	43.0	24.0	41.3	4.7	154.4	72.0
21-05	45.6	22.7	64.3	42.9	90.5	62.8	62.8	32.1	119.3	4.3	152.1	36.5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관세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붙임4

소비·고용·물가 동향

■ 4월 소매판매는 의류,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.3% 증가

- 의류는 온화한 날씨에 따른 외부활동 확대,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증가
- 화장품은 중국의 소비심리 회복으로 수출이 늘어 판매가 호조
 - *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18.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2.4% 증가
- 5월 소비자심리지수(105.2)는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이 개선되고 경기회복 기대감도 확대되어 3.0p 상승

■ 5월 취업자 수는 경기회복세, 기저효과, 정부 일자리사업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61.9만 명 증가

- 제조업(+2.0만명)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증가폭이 확대
- 서비스업(+47.1만명)은 코로나 영향이 컸던 숙박·음식, 청년층 선호가 높은 전문·과학, 공공 일자리사업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감
 - * 취업자수 증감(만명): 숙박음식 0.4, 전문과학 5.7, 보건·복지 24.1, 공공·행정 8.3
- 상용직(+35.5만명), 임시직(+30.7만명)의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, 비대면 유통이 늘어나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(-6.7만명) 감소폭이 확대

■ 5월 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 +2.6%)는 9년1개월만에 최대폭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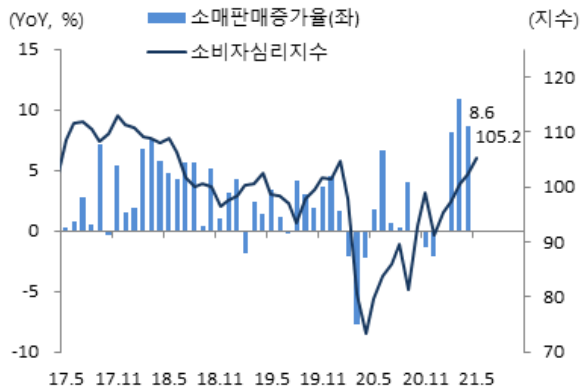
- *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각각 0.96%p, 0.83%p
- 농축수산물(+12.1%)은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,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감
- 석유류(+23.3%)는 전년도 기저효과,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, OPEC+ 감산 유지 결정으로 오름폭이 확대
 - * WTI선물가격(달러/배럴): 2018.10.18일 69.8 → 2020.4.20일 -37.6(최저) → 2021.6.9.일 69.6(2년8개월만에 최고치, 전년동일대비 +86.1%)

주요 소비·고용·물가 지표

항목	단위	연간			분기				월간			
		2018	2019	2020	20.2/4	3/4	4/4	21.1/4	21.2월	3월	4월	5월
GDP 민간소비	전기대비, %	-	-	-	1.2	0.2	-1.3	1.2	-	-	-	-
	전년동기대비, %	3.2	2.1	-5.0	-4.2	-4.5	-6.6	1.2	-	-	-	-
소매판매	전기대비, %	-	-	-	5.9	-1.1	0.9	1.7	-0.9	2.3	2.3	-
	전년동기대비, %	4.3	2.4	-0.2	2.0	1.6	-1.2	6.3	8.2	10.9	8.6	-
소비자심리지수	기간평균, 지수	104.0	99.1	88.3	78.9	85.6	94.4	97.8	97.4	100.5	102.2	105.2
취업자 증감	전년동기대비, 만명	9.7	30.1	-21.8	-40.7	-31.4	-44.1	-38.0	-47.3	31.4	65.2	61.9
실업률(SA)	%	3.8	3.8	4.0	4.1	3.8	4.3	4.4	4.0	3.9	3.7	3.8
소비자물가	전년동기대비, %	1.5	0.4	0.5	-0.1	0.6	0.4	1.1	1.1	1.5	2.3	2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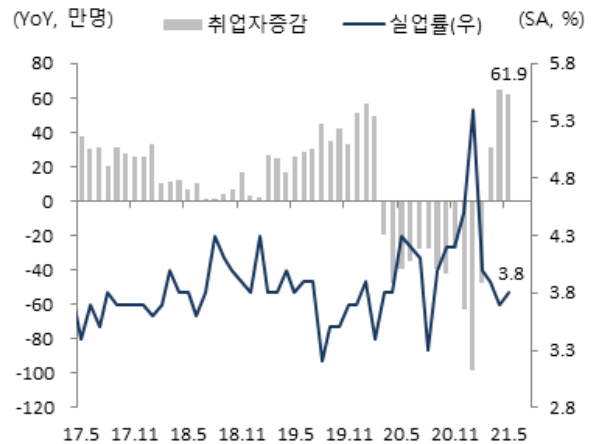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소매판매와 소비자심리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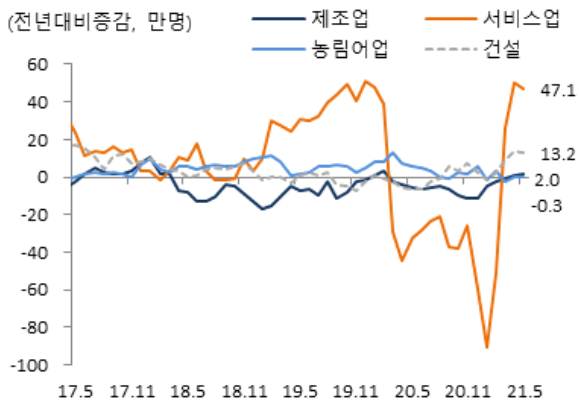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한국은행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실업률과 취업자 증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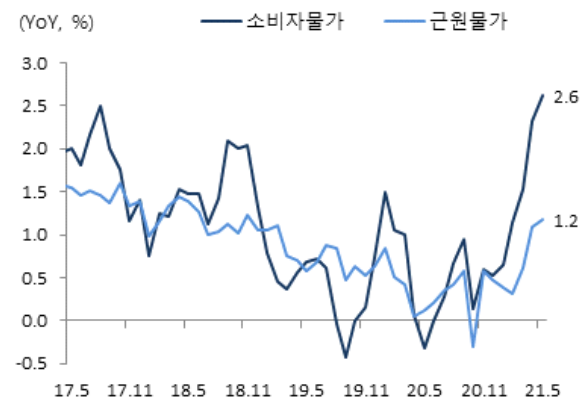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업종별 취업자 증감


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소비자물가 상승률


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붙임5 | 건설·부동산시장 동향

■ 4월 건설기성은 건축이 늘었으나, 토목이 줄어 전월대비 0.8% 감소

- 건설수주(경상)는 주택·사무실 등 건축과 도로·교량 등 토목이 모두 늘어 전년 동월대비 84.2% 증가

■ 5월 주택매매가격(전월대비 0.96%)은 수도권·기타지방의 오름폭이 축소되었으나, 5대 광역시의 상승폭이 확대

- 수도권(1.18%)은 서울이 토지거래허가지역 추가 지정(압구정, 여의도, 성수, 목동)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, 경기·인천이 시중금리 상승, 세 부담 강화,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둔화
- 5개 광역시(0.81%)는 대전(예: 유성구, 중구)·부산(예: 기장군)이 주거환경이 양호한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오름폭이 확대
- 기타지방(0.53%)은 제주가 신규분양, 비규제 영향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어 상승했으나, 충남(천안시)·경북(경주시)이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축소

■ 4월 주택매매거래량(9.3만호)은 재개발·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, 세제 강화, 가계대출금리 상승, 전세 수급동향 개선 등으로 소폭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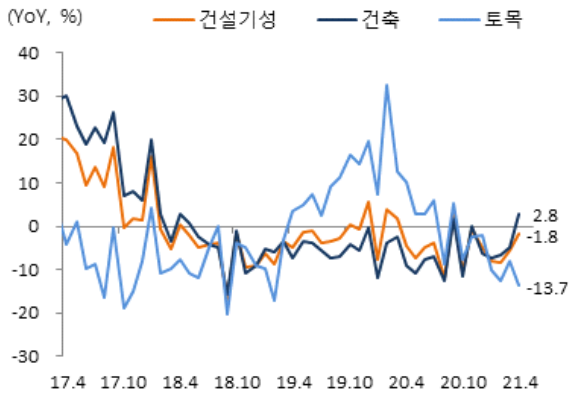
* 전국 전세수급동향지수: 2월 110.5 → 3월 108.8 → 4월 106.2

주요 건설·부동산시장 지표

항목	단위	연간			분기				월간			
		2018	2019	2020	20.2/4	3/4	4/4	21.1/4	21.2월	3월	4월	5월
GDP 건설투자	전기대비, %	-	-	-	-2.9	-3.9	3.5	1.3	-	-	-	-
	전년동기대비, %	-4.6	-1.7	-0.4	-0.4	-1.5	-2.9	-1.8	-	-	-	-
건설기성(불변)	전기대비, %	-	-	-	-2.9	-2.8	2.5	-3.6	6.8	0.3	-0.8	-
	전년동기대비, %	-4.2	-2.3	-4.1	-5.5	-4.2	-5.3	-7.2	-8.3	-5.7	-1.8	-
건설수주(경상)	전년동기대비, %	0.2	7.6	16.4	25.1	40.0	8.7	27.2	17.4	35.8	84.2	-
주택매매가격	전기말대비, %	3.16	0.24	8.35	0.85	2.47	3.50	3.92	1.36	1.32	1.06	0.96
	수도권	5.97	1.28	10.57	1.17	3.49	3.68	4.97	1.73	1.76	1.37	1.18
5개 광역시	전기말대비, %	1.11	0.44	7.84	0.72	1.38	4.49	3.35	1.25	0.98	0.73	0.81
기타 지방	전기말대비, %	-1.71	-2.49	3.27	0.18	1.07	1.92	1.74	0.50	0.49	0.60	0.53
주택매매거래	월평균, 만호	7.1	6.7	10.7	9.9	10.3	11.7	9.3	8.7	10.2	9.3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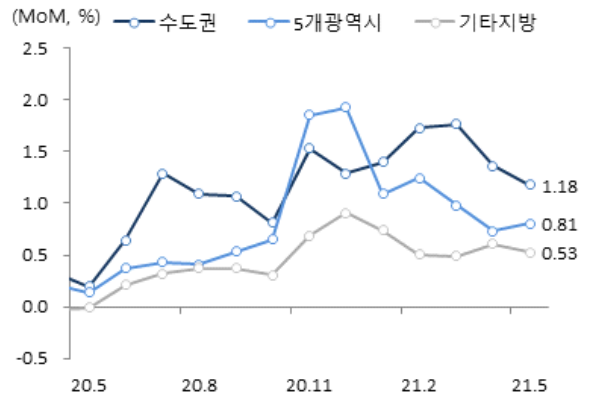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국민은행, 국토교통부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공정별 건설기성 증가율


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



자료: 국민은행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

(전월대비, %)

	전국	수도권	서울	경기	인천	5개 광역시	부산	대구	광주	대전	울산	기타 지방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/서귀포
2020-05-01	0.14	0.20	0.02	0.28	0.42	0.14	-0.01	0.08	0.30	0.41	0.09	-0.01	-0.15	0.02	0.13	0.01	-0.02	-0.09	-0.05	-0.11
2020-06-01	0.48	0.64	0.53	0.77	0.53	0.37	0.06	0.47	0.13	1.19	0.28	0.21	-0.08	1.08	0.16	-0.04	0.06	0.17	0.04	-0.47
2020-07-01	0.88	1.29	1.45	1.34	0.64	0.43	0.35	0.55	0.01	0.89	0.33	0.32	0.13	0.17	0.32	0.06	0.44	0.27	0.26	-0.28
2020-08-01	0.78	1.09	1.50	0.93	0.44	0.41	0.34	0.71	0.04	0.52	0.32	0.37	0.09	0.06	0.12	0.04	0.24	0.16	0.28	-0.05
2020-09-01	0.80	1.07	1.42	0.98	0.32	0.53	0.41	0.90	0.05	0.73	0.47	0.37	0.15	-0.06	0.26	0.11	0.19	0.20	0.24	0.00
2020-10-01	0.67	0.81	0.93	0.76	0.61	0.65	0.68	0.99	0.03	0.79	0.45	0.31	0.07	0.17	0.15	-0.04	0.93	0.06	0.21	-0.01
2020-11-01	1.43	1.53	1.66	1.64	0.72	1.85	2.36	1.91	1.12	1.51	1.61	0.69	0.45	-0.04	0.58	0.21	-0.17	0.73	0.93	3.35
2020-12-01	1.36	1.29	1.24	1.51	0.65	1.93	2.13	2.36	1.20	1.03	2.61	0.91	0.43	0.54	0.86	0.50	0.48	1.19	1.01	1.12
2021-01-01	1.19	1.40	1.27	1.72	0.66	1.09	1.00	1.31	0.61	1.01	1.66	0.74	0.61	0.48	0.61	0.49	0.38	1.08	0.84	0.10
2021-02-01	1.36	1.73	1.14	2.40	1.10	1.25	1.24	1.16	0.70	2.08	1.00	0.50	0.72	0.44	0.52	0.33	0.08	0.70	0.49	0.07
2021-03-01	1.32	1.76	0.96	2.30	2.29	0.98	0.75	1.03	0.54	1.88	0.88	0.49	0.44	0.42	0.78	0.34	0.14	0.52	0.57	0.06
2021-04-01	1.06	1.37	0.74	1.70	2.09	0.73	0.71	0.82	0.76	0.70	0.59	0.60	0.62	0.58	1.12	0.62	0.30	0.81	0.37	0.13
2021-05-01	0.96	1.18	0.80	1.30	1.88	0.81	0.96	0.84	0.62	0.83	0.45	0.53	0.36	0.77	0.58	0.65	0.20	0.56	0.45	0.47

자료: 국민은행, 우리금융경영연구소